

마이크론이 확인한 AI 메모리 호황… 삼성·SK 기대감 ‘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
마이크론 매출, 전년대비 379% 늘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실적 견인
내년 1분기 매출 최대 630억弗 제시
증시 훈풍, IT 국한… 반도체 쏠림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당분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같은 AI 메모리 호황의 수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정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79% 상승한 27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3.21% 오른 183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반도체 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은 2026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이 542억2900만



1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3.31포인트(1.95%) 오른 6971.3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38포인트(4.48%) 오른 838.41,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6원 내린 1358.4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 /뉴시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30.8%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437억5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36억5400만달러에서 1097.3% 급증했다.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32.3%에서 80.7%로 크게 높아졌다.

실적을 이끈 것은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였다. 데이터센터 사업부 매출은 180억2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1.4배 증가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5%에서 85%로 급등했다. 클라우드 메모리 사업부 매출도 162억8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분기 전망에서도 이어졌다. 마이크론은 2027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600억~630억 달러로 제시했다. 중간값인 615억달러는 시장 예상치인 570억2000만달러를 약 7.9% 웃돈다.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는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과도 맞물린다.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애널리스트 3명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287개 종목의 3분기 지배순이익 추정치는 19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

비 214.1% 증가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익 증가가 증시 전반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IT 업종 순이익이 156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가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순이익은 94조5000억원, SK하이닉스는 59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두 회사의 순이익을 합치면 153조6000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의 78%에 달한다.

김규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IT에 국한되며, IT가 내년에도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분의 96%가 IT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섹터의 기여도는 모두 합쳐도 4%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전체 순이익 규모도 향후 1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순이익 증가율은 2026년 4분기 364.4%로 정점을 찍은 뒤 2027년 1분기 83.8%, 2분기 9.1%로 점차 주춤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 이익을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의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순이익 증가율도 함께 낮아지는 모습이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업종의 순이익 증가율은 2026년 하반기 200.0%에서 2027년 상반기 61.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모멘텀 제한 가능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중심은 반도체가 될 것”이라며 “고금리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AI지만, 이를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산업 역시 AI”라고 판단했다. AI 투자로 인한 고금리 부담의 구축효과도 비(非)AI 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막힌 투자 뚫고 현장 애로 해소”… 7.9조 기업투자 손질

이형일 경제부총리·재경부 장관
비상경제본부·경제장관회의 주제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단축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정부는 인허가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기업투자에 대한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합계 8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진전이 더딘 데 대한 해소 대책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가 있지만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총 7조9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부총리,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종욱 관세청장. /뉴시스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각종 영향평가를 전(全) 단계에서 동시에 착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전 컨설팅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는 이달 중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높이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3조 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

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FAB)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한다. 현재 두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해야 하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 역시 추가 설치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변경허가를 몰아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7%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편 이후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총 8%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

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 명의 펀드에 적립 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대 전환 전략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폭염과 네덜란드 홍수 등으로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대표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올해 수출이 연간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수상태양광 3GW로 늘려 농업용수 부족분 2000억 채울 것”

농어촌공사 CEO 간담회

김인중 사장, 수상태양광 사업 계획
2030년까지 28개 지구서 추진
년 270억 수익서 7~8배 늘릴 것

수상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가 본격도에 올랐다. 2030년까지 전국 각지의 거대 담수호·저수지 등 수면을 활용한다. 28개 지구에서 도합 3기가와트(GW)의 발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농어촌공사의 김인중 사장은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분명 일조

한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30%)에 한참 미달한다.

하지만 공사의 제1 목적이 재생에너지 생산 자체에 있지는 않다. 발전 수익의 대부분이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등에 쓰인다고 했다. 이처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자원 마련이 추진 배경이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이다.

공사에 따르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매해 2000억원가량 부족하다. 김 사장은 농어촌공사에 접수되는 농업인들의 주요 요구 사안을 언급했다. 용배수로 정비와 양수장·배수장 개보수 및 운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예산 부족 탓에 이

같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육상태양광 등을 통한) 누적수익이 연간 270억원인데 향후 3GW까지 늘려 수익을 7~8배 정도로 늘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원) 부족분 2000억원을 채워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 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발전사업자, 공사 등 3자 간 이익의 균형을 꾀한다. 그간의 사업자 중심 수익 구조가 아닌, 33%씩 나누는 ‘3대 3대 3’ 모델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 설치면적 관련해서는 저수지 수면의 최대 10%, 담수호 수면의 20%라는 비중 상한을 둔다고 했다. 이로써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전북 김제 소재 새만금33센터에서 수상태양광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어촌공사

다. 또 수위계측 및 안전관리 등을 꾸준히 실시해 저수지 기능의 악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김 사장은 “공급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지역주민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 수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만 “환경적 측면, 도시 기능적 측면 등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사전에 받아, 큰 문제가 없다면 면적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사가 펴낸 분석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모듈은 빛물이나 순수한 물로 세척한다. 수질오염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녹조발생 위험도 없다. 자외선 차광이 되기 때문에 녹조를 도리어 저감하는 효과를 낸다. 어류 산란환경 조성에도 기여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태양광 모듈을 쓰기 때문에 중금속 유출 위험도 없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경우, TV·노트북·진공청소기가 배출하는 전자파보다 수치가 낮다.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김제=김연세 기자



metro